

3C

발상(concepts), 능력(competence), 관계(connections). 세계 정상급 기업이 되기 위한 요건. 미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의 로저베스 모스 캔터(1943~) 교수가 자신의 저서 <세계정상급>에서 제시한 것으로, 먼저 발상은 최신의 지식과 아이디어를 습득해야 하며 기술을 계속 향상시켜야 한다. 두번째는 가장 높은 수준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또한 전세계에 걸쳐 적합한 인물들과 교류를 갖는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 밖에 전세계 사람들과 허심탄회하게 일할 수 있는 세계화(Cosmopolitan)적 인식과 활동, 공동의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협력(Collaborations)의 자세도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3E운동(---運動)

신바람나게(exciting), 즐기면서(enjoyable), 재미있게(entertaining)의 영문 이니셜을 딴 말. 기업체 간부들이 신세대 부하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새로운 오피스라이프스타일이다.

3F

여성(female)·감성(feeling)·가상(fiction)을 뜻하는 것으로, 21세기에는 지식산업이 5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돼 3F시대가 올 것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21세기가 육체적 능력보다는 지적 능력이 중시되고 직업상 남녀차별이 없어져 여성 특유의 감성과 창의성, 그리고 지식 및 문화산업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라이브에이드(Live Aid)

아프리카 난민구제를 위해 1985년 7월13일에 개최된 사상최대 자선 록콘서트. 런던 웬블리 스타디움에 7만2000명, 미국 필라델피아 JFK 스타디움에 10만명 이상이 모여 동시에 진행, 160개국에서 방영돼 약 20억명의 시청자가 이를 감상했다. 이때 모은 원조자금은 약 700억원.

관성효과(慣性效果)

소득이 높을 때의 소비행동은 소득이 다소 낮아져도 곧 변하기 어렵다. 이처럼 소득이 늘어나지 않아도 그 소득과 균형잡힌 상태로 소비가 바로 줄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래치효과라고도 한다. 관성효과가 작용하면 소득이 감소국면에 들어가는 경기후퇴시에 소비성향이 일시에 상승한다.

러셀(Russel)

스키에서 눈이 많이 왔을 때 선두에 있는 사람이 스키 등을 신고 눈을 밟아 길을 만들면서 나아가는 것. 러셀 제설(除雪) 기관차를 처음으로 제작한 러셀 제설기회사의 이름에서 따왔다. 눈이 깊어 보행이 곤란할 경우 한발 한발 밟아 눈을 단단히 다지면서 나아가는 것이 요령이며 선두는 일정시간마다 교대한다.